



# 기술개발로 수출확대

## 신기술 실용화 국무총리상 수상

김광석 / (주)흥아기연 상무이사

2001 신기술실용화유공자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광석 (주)흥아기연 상무이사는 1974년 2월 입사, 27년간 재직하면서 업무 전반을 총괄 지휘·관리하고, 회사의 제반정책을 수립·결정, 향후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안하는 등 어려운 IMF 경제환경에서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는 초석을 다졌다.



회사가 정부의 자본재산업 육성시책과 우수한 국산자본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 고취로 지난 1981년 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 변신, 수입에 의존하던 블리스터 포장기계를 국산화하여, 다양한 기종을 생산하는데 기여해 왔다.

또한 산업기술개발자금을 활용, 개발자금 확보와 개발의 기회를 만들었으며, 배터리 자동공급장치를 포함, 분리형 포장기계 개발시에는(96년9월) 기술표준원과 “배터리자동공급장치”를 수탁계약하여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때 성공한 개발기종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싱가포르소재 에버레디사에 수출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규격이 통일된 배터리를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FEEDING SYSTEM도 개발함으

로써 독일의 일러그社 제품을 수입 사용하던 일본, 싱가포르 등의 Buyer를 한국으로 유치시켰다.

1998년 7월 24일 부설연구소 (No.981435)를 만들어, 전담 개발요원으로 하여금 신제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바, 초고속 발코니형 블리스터를 개발 완성하여 특허출원하였고, 1999년 ‘포장용 블리스터 제조

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No.제 0189467호)를 받는 업무 전반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산학 공동으로 ‘자기진단 기능을 부가한 멀티고속포장기(기계분야)’라는 과제로 1999년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01년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이중 포장방법을 적용한 TROPICALIZED 포장기계 개발’ 과제로 지원대상업체에 선정되어 참가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제반사업에 선두에 서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는 가족회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재학중인 학생은 하계·동계에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유능한 인력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인력 수급에도 안정화를 기했다.

김 상무는 신제품 개발은 곧 성장이라는 생각

을 갖고 있는데 신제품 개발은 해외전시회를 통해 자료 및 정보, Buyer와의 상담 등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확대 및 수출신장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하여 Buyer에게 직접 보여주 고, 설명함으로써 큰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해외전시회는 1987년 호주에서 개최한 국제전시회에 참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출부서 직원을 풀가동하면서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연 3회~6회의 국제전시회에 참가하여 지금까지 총 50~60여회의 해외전시회에 참가하였다. 특히, 1996년도 INTER PACK(독일), PACK EXPO(미국)에서 개최된 포장전문전시회는 수출시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국산우수자본재의 성공적인 기계개발로 회사가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데 공신역을 담당했다.

사내에는 TASK FORCE(책임자회의)를 설치 운영하였고, 노사간의 조화를 위하여 대화의 장을 열고 있으며, 또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체육시설과 휴게실 완비, 취미모임, 학자금보조, 전세보증금, 주택자금 융자 지원방안 수립에 앞장서서 모든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왔다.

직원들의 애사나 경사시는 직접 찾아가 축하와 위로를 해주고 있어 상하 임직원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음은 물론, 웃음이 많은 밝은 회사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무재해 5배를 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으로서 1999년 안전경영대상 특별상 수상하기도 했다. 1998년 9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1997년도 경기도에서 유망중소기업, 1999년도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경쟁력우수기업 2001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등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세계속의 흥아기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사회 활동으로 부천시지역 중소기업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내 기업총협의회에 적극 참여한 결과 지난해 제 27회 상공인의날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부터 모범관리자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포장관련협회 회원사들에게는 선두 수출 회사로써 먼저 알고, 실행하였던 경험과 Know-how인 국가별수출전략, 국가별무역 관행, 국가별 Buyer연구내용, 국가별 은행 제반업무, ABC SERVICE전략, PL법에 대응하는 MANUAL제작방법 등을 알리고 설명함으로써 수출에 빠른정보를 제공 해 주었다. 그 결과 지난 2월 한국포장협회가 주최한 제4회 한국포장인의날 행사에서 한용교포장인상 경영부문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김 상무는 한 회사에 장기 근속, 수출을 확대하여 국위를 선양하였고, 포장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을 나누고 교환하는 등 선두기업 선두주자로써 세계속에 NUMBER ONE이 아닌 ONLY ONE의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 ☞